

경험 및 경력기술서에 작성한 주요 프로젝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세요. (어떤 도전 과제가 있었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혹은 실패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지금 다시 도전한다면 어떻게 개선하고 싶은지 등) (최대 1,000자 입력가능)

8월에 시작한 DB migration tool 제작 과정에서 직면했던 문제입니다.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가 등록한 Entity 들을 바탕으로 Repository class들을 자동으로 생성해 동적으로 IoC에 등록하는 기능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Migrator에서 사용하는 Repository 메소드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추가된다 할지라도, repository class에 하나씩 메소드를 추가해주는 것보다는 하나의 Configuration 파일만 수정하면 모든 Entity의 Repository에 자동으로 해당 메소드가 추가해 도니 변경 포인트가 줄어든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구현하기는 쉽다. 그렇게 구현한 이유에 대해서 지켜왔다

다만, Entity 목록을 가져오고자 EntityManager를 호출하려니 여러 에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EntityManagerFactory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을 때 호출해서 발생하는 이슈 등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을 알고 스프링의 빈 라이프사이클을 더 공부해보며, 전체적인 빌드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JPA 등의 공식 문서는 물론이고, 관련된 코드도 직접 분석해보며 공부한 결과 JpaRepository를 대신 생성해주는 JpaRepositoryFactoryPostProcessor를 하나의 객체로 직접 만들어 빈으로 등록해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프로젝트에서 관리 중인 Entity 목록을 수월하게 가져올 수 있었고, 해당 Entity 목록을 통해 JpaRepository를 자동 생성 및 빈 등록 과정까지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체계적 이해

해당 경험을 통해서 단순히 프레임워크에 의존하기보단, 프레임워크 내부에서 그 구성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파악하고,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프레임워크를 더 효율적으로 튜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결과